



최경주 아시아나 항공 강연회



프로골퍼 최경주가 22일 금호아시아나 빌딩 문화아트홀에서 아시아나클럽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하고 있다.

“우즈 샷 안되면 신경질 내지만 다음 홀선 냉정”

“매치플레이어 OK 잘 안쥬”

“이 정도면 OK 아냐?”(Isn't It good?) 모처럼 귀국해서도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무명 시절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벌인 매치플레이어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웬만해서는 컨시드를 주지 않아 난감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2003년 최경주는 약센추어 매치플레이어 챔피언십과 프레지던츠컵에서 우즈와 맞붙었다. 경기를 앞두고 “참피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최경주는 “홀에 볼을 잘 붙여 내 승리가 확실했는데도 우즈가 OK를 주지 않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래서 최경주는 전반을 끝낸 뒤 컨시드를 달라고 몇차례 요구(?)했고 그 후부터는 우즈가 ‘굿’(Good)이라며 컨시드를 주기 시작했다고, 여러차례 대결을 벌이며 우즈를 지켜본 최경주는 “우즈는 샷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낸다. 하지만 다음 홀로 넘어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냉정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펼쳐졌다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스프링처럼 마음을 비우고 다음 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어있는 잔처럼 마음을 비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날은 승리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애·이선화·장정·지은희 “유종의 미 내가 거둔다”

‘지진’ 신지애(20·하이마트)와 이선화(22·CJ), 장정(28·기업은행), 지은희(22·힐라코리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인 ADT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올랐다.

‘LPGA 시즌 마지막 정규 대회’ ADT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진출

이선화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인더파를 쳤다. 이 대회는 32명의 상위 랭커들이 출전해 2라운드까지 성적으로 16명의 3라운드 진출자를 가린 뒤 다시 3라운드 성적만 따져 4라운드에 나갈 8명을 정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열린다.

년만에 미국인 상금왕이 탄생하게 된다. 지은희는 유선영(22·휴온스), 캐리 웹(호주)과 함께 나란히 이븐파를 쳐 공동 7위에 올라 세 명 가운데 2명의 8강 진출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를 거친 끝에 힘겹게 8강행 막차에 올라탔고 유선영이 탈락했다. 2라운드까지 단독 1위를 달린 캐서린 웹(호주)은 이날 7오버파를 치는 바람에 최종 라운드 진출이 무산됐다.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LPGA 투어 ADT챔피언십 3라운드 후 선수들이 우승컵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수잔 페테르손, 안젤라 스탠퍼드, 플라 크리머, 이선화, 장정, 신지애, 지은희, 캐리 웹.

“오초아 3년 연속 LPGA 올해의 선수”

로이터통신 보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가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오초아는 올 시즌 메이저대회 크라프트나 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7승을 올리는 등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을 밀어내고 1인자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가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서희경 시즌 6승 최혜용 신인왕 영예 KLPGA ADT 캡스

서희경(22·하이마트·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마지막 대회인 ADT캡스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서희경은 23일 제주 스키아일랜드골프장(파72·6천27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를 무려 9개나 쏟아내며 21타로 시즌 6승을 거뒀다. 지난 16일 끝난 세인트로이스 마스터스에 이어 2주 연속 제주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서희경은 우승 상금 6천만원을 추가하며 시즌 상금도 6억731만2천239원이 돼 신지애(20·하이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시즌 상금 6억원을 넘어섰다.

日 야구계 불협화음 주니치 선수 WBC 차출 반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명예 회복을 버려는 일본프로야구가 주니치 드래곤스의 선수 차출 반대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주니치의 투수 이와세 히토키를 비롯해 아사오 다쿠야, 다카하시 아키히루, 외야수 모리노 마사히코, 등 주니치 소속 선수 4명은 최근 WBC 일본 대표 후보 로스터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4일(월) ▲08/09 NFL <뉴욕 자이언츠> 애리조나

나>(06·10·SBS스포츠) ▲2008 탁구 슈퍼리그 (14·10·KBS2), <삼성생명> 대우증권(16·00·KBSN SPORTS)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 신한은행(18·50·SBS스포츠)

금당부동산 (062)223-7400.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WLB 웰빙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WLB agents.

다우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ow agents.

대인동심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agents.

해령법률경매. Real estate auction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